

교회:

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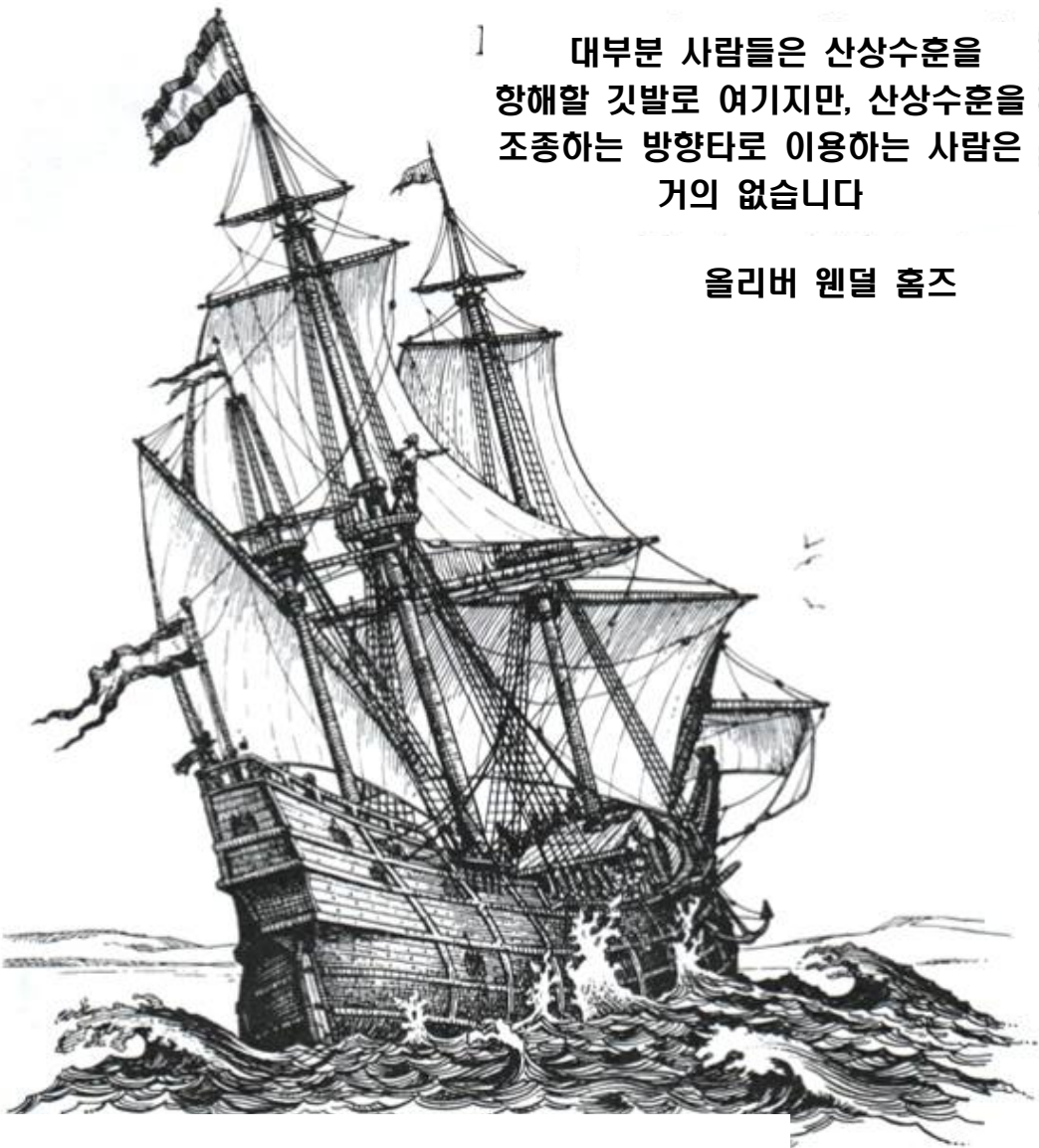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 청장년부 공과

## 제 12 권

1 대부분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항해할 깃발로 여기지만, 산상수훈을  
조종하는 방향타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 할 것인가?

# <청장년부 공과 제 12 권>

주제: 산상수훈(성도의 윤리강령)

공과	제목	쪽
제144공과	겸손	1
제145공과	공흠	4
제146공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7
제147공과	그리스도와 율법	10
제148공과	구제	13
제149공과	금식과 기도	16
제150공과	하늘에 투자하라	19
제151공과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의 돌보심	22
제152공과	비판과 분별	25
제153공과	믿음과 기도	28
제154공과	황금률	31
제155공과	두 갈래길	34
제156공과	반석 위에 지은 집	37

##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구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가르침에서 친숙한 말씀 중 하나는 산상 수훈입니다. 산상 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할 열두 명의 제자를 택하신 후,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권의 목적은 산상 수훈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에는 다양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를 뽑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12권 공과 본문에는 산상 수훈 말씀 외에 다른 성경 구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과 함께 산상수훈의 주제를 더 강조하면서 각 말씀의 주제는 공과 제목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공과는 겸손과 겸손의 영적 가치를 다룹니다. 마태복음 5장의 처음 다섯 구절은 겸손이라는 주제 이외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12권 안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12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144공과 겸손

성경본문: 마태복음 5:1-5, 8:5-10 ; 이사야 29:19, 57:15

보조본문: 이사야 6:1-3 ; 로마서 12:3

요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누가복음 14:11)

크리스천의 삶에 필수적인 덕목의 하나인 ‘겸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생긴다. 겸손은 거만이나 자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그것은 꾸미거나 가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삶의 전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1.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각각 어떻게 대하시는가?(약 4:6)
2.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을 집에 모실만한 자가 못된다고 말함으로서 겸비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라.
3. 빌립보서 2:3절과 베드로전서 5:5절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의 것이 되겠는가? 예를 들어 설명하라.
4.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가?(약 4:10)
5. 예수님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다(막 12:31) 이 교훈과 겸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6.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의 경배와 존

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분이 보여주신 겸손 하나를 들라(마 11:29, 빌 2:5-8).

7.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눅 18:13) 또 성경은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전 1:26)

8. 자신의 겸손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참 겸손이 될 수 있는가?

## 해 답

1. 겸비한 자에게는 은총을 더욱 베푸시어 행복하고 복되게 하신다. 거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그 교만한 얼굴을 미워하기까지 하신다(잠 6:16,17).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번성하겠는가? 설사 잠시 물질적으로 번성할 런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쇠퇴할 것이다.

2. 겸손한 자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시 10:17, 약 4:6,10).

3. 상대방을 존경하여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사람들도 겸손한 그런 사람을 존경할 것이다. 참 성도의 사랑과 겸손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이긴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4. ‘겸손’이 참된 성도의 한 성품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자신을 낮추라’는 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불러오는 어떤 상황에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서 자신을 낮추어야만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명한다(눅 14:11, 벰전 5:6).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 볼만 하지 않는가!

5. 사람은 교만한 태도 없이도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기 않는다’(엡 5:29) 고 하셨으며 동시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보지 말라’고도 경고하신다(롬 12:3).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들의 행복과 복지를 우리의 것 같이 찾게 된다. 우리가 이웃에게 함 같이 이웃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면에서 겸손과 자존은 공존할 수 있다.

6. 당신이 혹시 칭찬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무죄하시고 온전하셨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아무 존귀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베드로는 말했다(벧전 2:21).

7.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낮춰야 한다. 죄를 슬퍼하면서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시 51:17). 세상에서 힘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8. 겸손하다고 말은 하나 겸손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할뿐더러 더 나아가 일상행위 속에 기쁨을 가져온다.

## 제145공과 공 흘

성경본문: 마태복음 5:6-9, 38-48, 18:23-35

보조본문: 사무엘상 26:7-11

요절: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잠언 11:17)

공흘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 속성이다. 그래서 공흘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공흘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공흘은 동정을 베풀고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비록 공의가 처벌을 원할지라도! 공흘은 가장 비천한 자에게도 도움을 베풀기를 바라는 그대로 실천에 옮긴다. 또 지극히 무가치한 자격 없는 자라도 그 품에 안고자 한다.

1. ‘공흘’을 정의해 보라. 성경인물이나 주변 이웃에게서 공흘을 베푸는 자를 들라.

2.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공흘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미 6:8).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들라.

3. ‘공흘히 여기는 자가 공흘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공흘의 행위’로써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딤후 3:5).

4. 누가복음 10:33-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식으로 공흘을 베풀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라.

5. 오늘 본문에서 왕으로부터 빛 독촉을 받은 종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6. 왕은 빛을 값어치 없는 종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죄인의 죄의 빛을 탕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이 왕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라.



7. 큰 빛을 탕감 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조그만한 빛을 진 동료들 빛을 갚으라고 감옥에 넣어 버렸다. 긍휼의 반대이다. 겉으로 나타나든 안든 긍휼의 반대되는 태도의 형태들을 들라.

8. 당신이 왕이라면 무자비한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당신은 날마다 가정이나 학교나 혹은 직장에서 긍휼을 베푸는가?

## 해 답

1. 한글 사전에서는 ‘가엿게 여김’으로 정의한다.

2. 긍휼은 베풀 만큼 그대로 받는다. 현세에서 받지 못하면 내세에서라도 받게 된다.

3.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효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의의 열매들’은 이러한 구원함의 결과이지 우리의 긍휼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 본 성도가 항상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라고 요구하신다(미 6:8).

4. 시간, 돈, 개인적인 노력을 들여서 긍휼을 베풀었다. 소돔 사람들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예처럼 때로는 긍휼이 단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면에서만 베풀어질 수도 있다(창 18:24-32).

5.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빌었다. 그가 것처럼 빌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와 그의 처자식과 모든 소유는 팔려서 빛을 갚는데 쓰였을 것이다. 그것도 그 빛이 너무 커서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빌지 아니 한다면 죄의 빛을 무슨 수로 갚을 수가 있겠는가?

6. 왕은 탕감해 주었다. 종이 비록 빛을 탕감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종의 신분인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 죄인을 자유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

께 후사가 되게 해 주신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종이 아니라!

7.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자이다. 비판과 긍휼이 없는 정신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킨다.

8. 각자 해 보라.

## 제146공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

성경본문: 마태복음 5:13-16; 다니엘 6:1-28

보조본문: 요한복음 1:1-9 ; 사도행전 13:47; 빌립보서 2:14,15 ; 요한일서 1:5-9

요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베소서 5:8)

물리적인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어 사물을 밝히 드러내고 온 땅에 생명을 주며 온기와 위로를 준다. 빛이 이처럼 중요하므로 하나님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부터 몰아내셨다(창 1:2-5). 빛이 없으면 피조세계는 죽음의 연속적인 상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빛보다 영적인 빛은 더더욱 중요하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말 4:2)라고 말한다. 영적인 이 빛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다.

1. 영적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1:1-9). 영적인 빛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영적인 빛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명령(마 5:16)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3. 다리오 왕의 세 총리 중 수석 총리이던 다니엘은 자기 빛을 어떤 식으로 비추었던가?(단 6:3,4)
4. 두 총리와 120명의 도지사들은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할 틈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흉계를 꾸몄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5. 왕이 금령의 조서에 어인을 찍은 것을 안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6. 다니엘의 빛된 삶이 왕의 마음에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였다. 다니엘에게 행한 왕의 말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7. 왕이 다니엘에게 거듭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특별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8. 다니엘이 순교적인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구출된 결과 그의 빛은 얼마나 멀리 퍼졌는가?

## 해 답

1. 예수. 영적인 빛과 영적인 생명의 상관관계를 깊이 생각하라.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빛은 영육 간에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빛을 버리면 그 결과는 영원한 어두움이다.

2. 세상은 영적 흑암이 덮쳐서 영적으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성도가 각 처에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은 온통 악하게 되어 살기가 두려울 것이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의 와중에서 악한 상황이 처처에서 드러나듯이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악이 창궐하고 있다.

3. 다니엘은 신앙인격이 워낙 뛰어났기에 아무런 흠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그를 마태복음 5:16절 말씀과 비교하라. 성도의 ‘선한 행실’은 세상에 빛이 된다.

4. 그들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에 왕이 어인을 찍게 했다. 이는 다니엘을 파멸시켜 그의 빛을 제거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뺀다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을 만큼 슬기롭고 완전하게 처세했다. 원수들도 이를 알았다.

5.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 기도하였다. 물로 타협하여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

이다. 성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롬 1:16).

6. 왕이 비록 이교도이기는 했어도 다니엘의 경건한 삶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다니엘 5:16절에 나오는 왕의 진술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말해진 것이다.

7. 하루 세 번씩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생활은 궁 안팎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다.

8. 왕은 다니엘이 살아나매 온 나라에 칙령을 반포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라고 하였다. 한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이매 그 빛이 온 세상으로 어떻게 멀리 퍼져 갔는지를 생각하라.

## 제147공과 그리스도와 율법

성경본문: 마태복음 5:17-20 ; 로마서 8:3,4 ; 갈라디아서 3:19-29

보조본문: 로마서10:4-9 ; 갈라디아서 2:16 ; 디모데전서 1:8-11

요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갈라디아서 3:24)

‘몽학선생’이란 헬라 원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어린 아동을 학교나 운동장으로 인도하여 주는 자를 뜻했다. 그러나 아동이 장성한 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몽학선생이 그 맡은 아동을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게 한다.

1. 모세율법이 주어진 이유를 말하라(갈 3:19).

2. 율법은 어떤 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었는가?(딤후 1:9,10)

3. 성경에 나오는 대로 속죄제물과 관련된 모든 제사의식들은 죄를 속함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레 8:15 ; 히 9:19-22). 이 의식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라(히 13:11,12).

4.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보라.

5. 구약의 율법준수는 의식적인 희생제사들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갈라디아서 3:22-26절에 나오는 주요단어를 말하라. 이 단어가 율법시대나 은혜시대에서 사람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유를 말하라(합 2:4 ; 롬 1:17).

6. ‘의롭게 되다’의 뜻을 설명하라. 또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가?(갈 2:16,3:24)

7.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작용하는가?(롬 10:9,10)

8. 율법을 오해하므로 빚어진 결과를 하나 들라(행 10:28).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폐지되었는가?

## 해 답

1. 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함이였다. 율법은 인간의 죄된 성향을 폭로하는 수단일 뿐 죄성을 생산하는 수단은 아니다. 햇별이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를 드러내듯 율법도 인간의 미세한 죄들을 보여 준다.

2.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율법은 죄인들과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다 오늘날 시민법이 시민들을 보호해 주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함과도 같다.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이로써 다른 죄들을 미연에 예방하기도 한다. 율법아래서 신정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왕과 지도자로서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했다. 율법에 복종하면 나라가 보호받고 국민들도 형통했다. 불순종하였을 때는 괴로움을 당했다.

3. 속죄제물을 드릴 때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고 그 피를 뿌렸다. 그리스도께서도 죽임을 당하사 그 피를 흘리셨다. 또한 황소가 진 밖으로 끌려갔듯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4. ‘온전케 하다’란 ‘성취하다, 완전하게 이루다’란 의미이다. 율법은 장래에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요 한 약속이였다(히 10:1). 그림자가 있으면 그 실체도 있는 법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희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가 밝히 드러난다.

5.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느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마음에 느낄 수 있다. 구약시대나 은혜시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6. '무죄가 되다', '책임을 면하게 되다' 이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흠과 티들은 제거되고 없어진다.

7.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율법시대보다 은혜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더욱 쉬운가를 알 수 있다. 구약시대는 흠 없는 짐승을 제단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죽여야만 했다. 그것도 일생에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마다 그렇게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은혜시대인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다.

8.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변 열국들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러한 고립은 깨져 버리고 어디서나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예수의 희생으로 인하여 율법의 모형들과 그림자들은 다 성취되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곧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장벽도 무너졌다. 오늘날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것일 것이다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라 ...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 제148공과 구 제

성경본문: 마태복음 6:1-4 ; 고린도후서 8:1-15

보조본문: 누가복음 6:38 ; 히브리서 13:1,2

요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잠언 28:27)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입의 십일조 이외에도 능력껏 혹은 힘에 부칠 정도의 헌금을 하였다 하는 것은 우리의 감동을 자아낸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심한 핍박 때문에 궁핍했다. 상대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심한 가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거두어 보냈다. 이로써 그들은 자유와 관용의 풍성함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바울은 이를 예로 들어 고린도 교회 역시 동일한 사랑을 보여 달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구제금 말고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 재산을 분배하기도 하는 등 그들 중에서 아무도 궁핍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1. 성도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와 또 누구를 구제하여야 되는가를 말해보라.

2. 구제의 수요는 많고 그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때 구제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3. ‘의연금’이란 자선행위로서 일종의 선한 동정심의 표출이다. 성전 미문의 거지는 동정을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넬료도 이러한 종류의 선행을 베풀었다. 그는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하나 지어주었다는 전승도 있다.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도르가의 선행도 바로 이런 자선행위였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4.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를 낸 과부를 칭찬하셨다(눅 21:1-4).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대한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적절한 헌금액수의 기준은 무엇인가?

5. 헌금을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영육 간에 받은 복들을 적어 보라.

6. 상기한 목록을 참고하여 당신은 영육 간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7. 지금 세계는 가난, 굶주림, 온갖 질병들, 전쟁, 갖가지 범죄들로 요동치고 있다.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져야 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도와줄 방도를 말하라.

8. 마태복은 6:3절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라.

## 해 답

1. 이웃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동정 때문이다. 궁핍한 중에 있는 친척과 이웃 및 교회 성도이다.

2. 성경에 잇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고아, 과부, 궁핍한 이웃, 교회 선교지의 필요한 대상 등...

3. 동정을 베푸는 행위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다. 거듭나면 이런 동정심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4.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헌금하는 동기나 목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액수의 다소나 비율을 정하기는 어렵다.

5. 구원, 성결, 성령의 침례, 죄에 대한 승리, 위로와 인도하심 및 육체적인 건강, 가족, 물질적인 축복들, 특별한 달란트들...

6. 각자 하도록!

7.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8. 마땅히 할 일을 했음으로 자랑치 말라는 것. 자랑하여 인정을 받음이 곧 상이니 하늘에서는 상이 없음.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워 구제가 중단되는 부작용이 생김. 은혜가 되지 못하여 구제의 가치가 하락됨.

## 제149공과 금식과 기도

성경본문: 마태복음 6:5-8, 16-18, 17:14-21

보조본문: 이사야 58:1-11

요절: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요엘 2:12)

금식은 영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그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끊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보통 간절한 기도가 따른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셨다(마 17:21). 그때 제자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는 일에 실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1. 금식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을 때 그가 드리는 금식과 기도의 가치는 어떠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사 58:3-7)

2.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나?

3. 하나님 앞에 절박한 이유 때문에 금식한 성경의 예들을 살펴보면 금식하는 이유와 때에 관한 합당한 근거를 얻게 된다. 아래 성구에서 금식자, 금식이유, 그 응답 순으로 찾아 적으라.

에스라 8:21-23, 31

느헤미야 1:4-11, 2:1-6

에스더 4:15-17, 5:1-3

4. 때로는 영육 간에 심한 압박을 당하여 금식기도를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다. 금식해야 되는 때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과 모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훈들을 적으라(마 9:14-15, 17:21).

5. 신자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할 때 마귀는 어떻게 나오는가?(단 10:3,12,13)
6. 욥은 큰 환란에 처했을 때 음식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았나?(욥 23:12)
7. 금식기도만 하면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해결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8.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목적과 결과들을 적으라(행 13:2-3,14:23).

## 해 답

1.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기꺼이 순종하려고는 아니 하였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은 채 금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드는 이들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살 빼려는 목적으로 금식하기도 한다. 이것을 영적인 금식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그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시고 ‘외식자’라 칭하셨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는 아무런 상도 받을 게 없었다.
3. 에스라와 그의 무리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여행하기 원했고 그 응답을 얻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왕의 허락을 얻어야 했는데 그 응답을 얻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열납해 주기를 바랐는데 결국 소원을 이뤘다. 금식할 때는 간절한 기도를 병행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4. 특별히 필요해서 금식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랑이 없을 때는 자기 제자들이 금식하리라고 주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질병 든 한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경우는 기도와 금식을 해야 고쳐진다고 하셨다. 주님은 오랜 시간동안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온 밤을 새우시면서 까지 기도하시기도 했다.

5. 다니엘은 마귀의 방해로 21동안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해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증오하며 할 수 있는 대로 항상 방해한다.

6.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는 그가 환란 가운데서 기도 뿐 아니라 금식도 하곤 했음을 나타낸다. 만일 욕이 환란 가운데서 그 같은 금식과 기도를 소홀히 했더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7. 분명한 답변은 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실하고도 간절하게 간구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응답을 받게는 될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바라는 바와는 다른 것일 것이다.

8. 각자 하도록(참조성구 야고보서 5:16)

## 제150공과 하늘에 투자하라

성경본문: 마태복음 6:19-21 ; 누가복음 12:13-21

보조본문: 마태복음 13:44-46

요절: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골로새서 3:2)

솔로몬은 그의 지혜로 ‘인생이 그 평생에 해 아래서 행하여야 할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았다. 그러나 땅엿 것은 그 무엇도 인생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다 헛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전 2:3-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이 평생에 힘써야 할 참된 투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보물이 잇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0,21). 그러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두 경우를 비교하여 보고서 하늘에 투자하는 인생이 지혜로움을 깨닫게 될 것이다.

1. 땅에 속한 보화들 몇을 들라. 그 중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만 꼭 필요한 것들을 추려 보라.

2.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세상 보화들은 어떻게 되는가?

3. 땅에 속한 그러한 보화들이 그 소유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누구나 한동안은 기대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전 5:10)

4. 하늘의 보화들 몇 가지를 들라.

5. 하늘의 보화를 돈으로 살 수 없다면(벧전 1:18) 어떻게 해야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가?(벧전 1:19 ; 요 14:1-3 ; 말 3:16,17)

6. 누가복음 12:17절의 그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하려고 했나?

7. 부자가 진짜로 마음을 써야만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8. 예수님은 그 부자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과의 유사점을 묘사하시고서 그 부자를 어리석다 하셨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의 저의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적으라.

9. 오늘의 요절인 골로새서 3:2절의 뜻을 설명하라.

## 해 답

1. 재산, 가옥, 돈, 재물, 컴퓨터, 운동 기구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도 있다.

2. 좀과 동록이 먹어 부패하거나 도적이 훔쳐 간다. 땅에 속한 보화들은 잠시 동안만 존재할 뿐이다. 돈은 허비되거나 도둑맞거나 혹은 잘못 투자하면 사라져 버린다. 차나 가옥이나 의복도 그리하여 새 것들로 언젠가는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땅엿 것들은 영구적이지 못하다.

3. 물질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세 발 자전거는 두 발 자전거에, 자동차는 더 나은 신차에, 좁은 아파트는 더 넓은 아파트에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더 좋은 것들을 소유키 위하여 많은 이들이 돈을 더 주는 일자리를 찾는다.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참 만족함이 없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온갖 것을 다 소유하여도 그 영혼을 희생시켜 얻은 것이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4. 예수님을 뵈옵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의 거처에 들어가며, 황금거리를 걷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기타 등등...



5. 하늘의 아버지께 자기 마음과 삶과 의지를 굴복시켜 드림으로써 하늘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여 위엣 것들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김으로써 하늘의 보화들을 얻을 수 있다.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이나 핍박을 더 중히 여겼으며 하늘의 기업에 대하여 확신하였다.

6. 현재 있는 곡식 창고가 추수할 곡식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할까 보아 걱정했다. 이미 있는 창고만 하여도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이 창고들이 짝 찢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 부자는 원래의 창고가 찬 후에도 ‘내가 이제 무엇을 할꼬?’ 궁리한 끝에 더 큰 창고를 늘려 짓기로 하였다. 세상 것들을 소유하는 데는 한도가 있는 법이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법이거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청지기적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7. 땅엣 것들에만 마음을 썼으나 정작 마음을 써야 했던 자기 영혼에는 무관심하였다. 아무도 자기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귀한 영혼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항상 죽음을 준비함이 유익하다.

8. 그 부자는 땅엣 것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오래 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자기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정작 자기 영혼의 행복에 대해서는 추호도 생각하지를 못했다.

9.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마음(소망)을 두고 살라는 뜻이다.

## 제151공과 세상적인 염려와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본문: 마태복음 6:25-34 ; 열왕기하 4:1-7

보조본문: 이사야 43:1,2 ; 빌립보서 4:6,7,19

요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인생길을 가다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염려에 빠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 분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5:7).

1.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 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 하나?”의 뜻을 쓰라.

2. 마태복음 6:26절은 하나님이 심거나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까지 돌보신다고 말한다. 같은 구절에는 어떤 질문이 들어 있는가?(참조 사 43:7 ; 요 3:16)

3. 예수님은 마태복음 6:28절에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들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오늘 본문(왕하 4장)에 나오는 여인은 지혜롭게도 엘리사에게 고민거리를 가지고 와서 상의했다. 그런 태도가 지혜로웠던 이유는?

5. “이웃의 그릇들을 빌려 오라”는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한 여인의 아들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영적 속성들은 무엇인가? 또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교하여 유사성을 적으라.

6. 여인의 가족에게 일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체험이나 지식으로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적으라.

7. 마태복음 6:31절의 의식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또 6:32,33절에서 발견되는 확신은 무엇인가?

8. 마태복음 6:3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 6:6-11 ; 엡 4:28 ; 살 후 3:10 이들 성구들은 열심히 생활비를 벌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뭐라고 경고하는가?

## 해 답

1. 날마다 먹는 음식이나 입는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거둬나서 주님을 섬기는 인생이야말로 귀한 삶이 아닐 수 없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2.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욱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지었나니”(사 43:7).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요 3:16). 곧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더욱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3.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으로부터 영원토록 배우는 자이다. 백합화가 아름다운 것은 그 외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 생존을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 얼마나 인간보다 지혜로운가?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4. 하나님은 여인이 하여야 할 바를 엘리사를 통하여 조언하여 주심으로써 여

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주셨다.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위이다.

5. 믿음, 순종, 자발성.

6. 기름. 여인의 가족은 그 기름을 팔아 빛도 값고 생계를 유지했다. 지금도 여인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적적으로 돌보아 주신다.

7. 그런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몰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신다는 것이다.

8. 남녀를 무론하고 각 사람은 정직하게 일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 번 돈의 일부로 궁핍한 이웃을 구제해야 될 의무도 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므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함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 때 어려운 중에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오늘’을 돌보아 주시니 그렇게 하면 ‘장래’에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다(빌 4:6,7).

## 제152공과 비판과 분별

성경본문: 마태복음 7:1-5, 15-23 ; 로마서 2:1-3

보조본문: 누가복음 6:37, 41-45, 13:6-9

요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태복음 7:18)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적이 있는가? 그것은 작더라도 눈에 상처를 준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려 드느냐?’고 주님은 경고하셨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려드는 태도는 그렇게만 보려 드는 그 사람의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참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렘 17:10).

1. 오늘본문에 사용된 ‘비판하다(판단하다)’의 의미를 설명하라.

2. 타인을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은 엄격히 금하신다. 그 이유를 적어 보라.

3. 고린도전서 11:31절은 우리 자신에게 엄격히 하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신실하게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신자들이 장차 받게 될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5절에는 자신을 ‘확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온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자신을 말씀으로 비판하여야 되는가를 적으라.

4. 성경은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또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도 하였다. 타인을 그 열매로 분별할 때 그 사람의 특별한 동기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타인의 영적 상태를 꼭 살펴야 할 경우를 들어 보라.

5. 타인의 삶을 영적으로 점검할 때 그 점검 기준들을 들라.
6. 성령의 열매가 어떤 사람의 삶에 온전하게 혹은 부족하게 나타날 때 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어떠함을 보여 주는 것인가?(갈 5:22-26).
7. 지금까지 배운 비판기준이나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에게 적용하여 보라.

## 해 답

1. ‘양편에서 증거를 취하여 이를 근거로 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다’이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혹은 그의 죄 있음을 어느 정도라도 단언할’ 때 쓰였다.
2. 타인을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으리라고 하셨다. 구원받을 때 우리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신자는 이를 조심해야 한다. 타인을 비판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롬 2:1)
3.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을 살피거나 조사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살핀다면(비판한다면),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4. 누구를 도와주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삶이 교리적으로 온전한가, 대화는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가, 행동은 이기적이지 않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경건한 것들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점은 없는가... 등이다. 타인을 분별할 때 그들이 직접 털어놓지 않는 한 그들의 숨은

동기나 목적이나 이유나 감정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오직 그들의 외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가가 기준이 된다.

6. 누구든지 그 삶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상태거나  
혹은 이기적인 육신의 행위를 맺는 상태를 드러낸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은 상태임을 드러낸다.

7. 말씀공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노력하라. 성  
령의 열매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 제153공과 믿음과 기도

성경본문: 마태복음 7:7-11, 9:27-30, 요한일서 5:14, 15

보조본문: 마가복음 11:24 ; 요한일서 3:22

요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기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는 지존자, 지극히 거룩하신 자, 전능하신 분 앞으로 기도자를 인도한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히 11:6).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서 뿐 아니라 행동으로서 끌어안는 것이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성령의 중보사역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들을 낳게 해준다.

1. ‘기도하라’고 격려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 가지 말씀을 적으라.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을 어떻게 각각 적용할 수 있는가?

2. 예수님의 지시대로 따를 경우,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가?

3.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마 21:22). 이 요소는 항상 본질적인 것인가?

4.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다(막 11:22).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롬 10:17)

5. 예수님이 두 소경에게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를 적으라(마 9장).



6.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너는 가서 실로암 물에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신유의 기적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7.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8. 마가복음 11:24절, 요한일서 5:14,15절의 약속들은 어떤 면에서 비슷한가?

## 해 답

1.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고, 찾으면 발견할 것이며,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 말들은 효과적인 기도의 일부로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낸다.

2.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 눅 10:1 ; 요 14:13,14 ; 요 16:24 . 찾으라 : 사 55:6 ; 렘 29:13 ; 행 17:27. 두드리라 : 눅 13:25 ; 계 3:20.

3. 하나님을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상급이 임하나,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칠뿐이다(참조 히 11장 ; 약 1:5-7).

4.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 하나님의 영원성과 그 능력과 그가 베푸신 기적들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믿음도 자라난다. 믿음대로 실천할수록 그 믿음은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5.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주님의 질문에 호응할 때 강한 믿음이 일어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모욕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림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마 15:21-28).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그 전까지는 그녀의 믿음과 관련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6. ‘믿음’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소경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형태로 행동화 될 때 신유의 기적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믿음과 기도에 핵심 요소이다(요 15:7).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동일한 뜻으로 취급한다.

7. 무슨 기도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다음 성구들을 통하여 어떤 유익들이 밝히 제시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벧후 3:9. 흠정역).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이 약속(성령에 대한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행 2:39. 흠정역). 이처럼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하는 기도는 위험하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유익치 못한 경우는 더하다(시 106:15).

8. 기도의 응답. 성경 도처에서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한다. 신자의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에 부합되게 응답하시려면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기도 할 것이다. 다니엘은 삼 주간이나 지나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기도가 첫날에 이미 응답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기도응답이 그에게 늦게 온 것은 원수의 방해 때문이었다(단 10:12,13).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로 세세하게 역사하시도록 신자들은 기도하되 믿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 제154공과 황금률

성경본문: 마태복음 7:12 ; 누가복음 6:31 ; 민수기 12:1-13

보조본문: 로마서 13:10 ; 갈라디아서 5:14

요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서로 사랑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은 그분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의 삶의 한 큰 원리이다. 오늘 공과의 연구방향도 종종 ‘황금률’로 불리우는 요절 말씀과 관계된 것이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대 원리로서 이 원리대로 살면 사업관계와 가정생활과 모든 대인관계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말씀이 모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누구나 황금률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1. 황금률의 ‘률’의 뜻을 설명하라.

2.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율법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2:37-40절에서 대답하셨다. 오늘공과의 본문말씀들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들라.

3. 다음 성구들을 황금률과 비교하라. 그런 후 거기에 맞는 오늘의 상황들을 일상에서 하나씩 들라.

잠언 15:1

로마서 12:8

로마서 12:14

로마서 12:21

4.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황금률을 어겼는가?

5.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황금률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갈 6:11)

6. 예수님은 황금률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신 표본적인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발자취를 따라 가야 한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욕하고 고난을 가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벧전 2:21-23).

7. 동료의 모욕과 핍박에 대하여 우리는 취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승리 아니면 패배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가? 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8. 황금률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이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논박하거나 입증할 만한 영적 증거를 제시해 보라.

## 해 답

1. 언행의 안내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안내한다.

2. 성도가 맺는 모든 관계들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언동을 인도한다. 황금률과 예수님의 대답은 같은 진리를 나타낸다. 이대로 행하면 어떠한 유익이 오는가?

3. 각자 해보라.

4.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주지 못했다. 하나님은 신자가 다른 이를 비판하거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한다면 좋아하겠는가? 황금률대로 실천하거나 혹은 그렇지 아니한 성경상의 인물들을 들라. 선한 사마리아인, 요셉의 형들, 요셉 자신, 라

합, 아브라함과 롯.

5. 온유한 마음으로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녀에게 임한 심판의 병을 옮겨달라고 간구했다. 미리암의 불경건한 비판과 모세의 온유한 축복은 극히 대조적이다. 이 일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모세가 행한 것같이 행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6.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대신 모든 것을 바로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셨다.

7. 불쾌한 상황에서 신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친절하게 구는 것이다. 그래도 결과가 시원치 않을 경우라도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므로 승리한 것이다. 매일 친절을 실천하는 신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행한 그대로 받게 된다.

8. 황금률을 실천한다고 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음의 성구들을 찾아보라. 누가복음 13:3 ; 요한복음 3:3 ; 요한일서 1:8,9.

## 제155공과 두 갈래길

성경본문: 마태복음 7:13,14 ; 신명기 30:15-20 ; 시편 1:1-6

보조본문: 시편 37:1-11 ; 잠언 14:12

요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태복음 7:13)

인생에는 두 길만 있다. 의의 길과 죄의 길, 혹은 선의 길과 악의 길, 혹은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중간은 없다. 성도와 죄인의 차이, 경건자와 경건치 못한 자의 차이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의 차이이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나아간다.

1.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로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는 말씀 앞부분에서 한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한다.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을 쓰라.

2. 왜 좁은 길에서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가?(신 25:16 ; 사 59:2 ; 요일 3:8).

3.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특징이 성경에 나타난다(갈 5:19-21). 이중에서 오늘날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 셋을 들라.

4.세상에서 살아갈 때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5.시편 1장은 두 길을 대비한다. 곧 경건한 길과 불경건한 길이다. 경건자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6. 바른 길을 끝까지 가려면 ‘헌신’이 필요하다. 헌신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7. 시편 1:1절에 나오는바 복 받고자 하는 자가 피해야 할 것 셋을 적으라.

8. 모세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음’, ‘선과 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그 결과를 적으라.

## 해 답

1. 직접 찾아보라. 주님은 거기에 직접 답변하지는 않으셨다. 만약 직접 답변 하셨다면 그것이 어떤 답변이었겠는가? 거룩한 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극소수라는 것을 유념하라. 누가복음 13:24절의 ‘좁은’의 의미를 묵상하라.

2. 하나님은 일체 죄를 용납지 아니 하시기 때문이다. 좁은 길에서 죄를 용납 한다면 넓은 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회개하여 구원받음으로써 들어가는 길이다.

3. 죄의 목록들은 이러하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등, 이 중에서 셋을 골라 보라.

4. 학교 시험일에 옆 친구가 컨닝을 도와 달라 할 때, 혹은 직장의 사장이 담배를 한 갑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아니면 전화가 왔는데 사무실에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라고 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가? 바른 길을 가려면, 죄와 타협치 말아야 한다.

5.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헌신을 통하여 매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6. 항상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되 제목별로 공부하거나 계획을 세워 하고

또 기도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되 가족과 함께 하는 등 공동으로 함께 헌신을 하도록 해본다(시 119:11, 롬 10:17).

7. 불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죄인과 함께 서지 말고 진리를 조롱하는 자와 함께 앉지 말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에 참여하게 된다. 죄는 점진적으로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끈다. 그러니 성도들과 친교를 힘쓰라.

8. 누구나 좁은 길(생명,선)이 아니면 넓은 길(죽음,악)을 지금 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세나 예수님은 둘 중 어떤 길을 제시했던가?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마 6:24).



## 제156공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성경본문: 마태복음 7:24-29 ; 고린도전서 3:9-15

보조본문: 로마서 2:13 ; 야고보서 1:22-25

요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야고보서 1:22)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 진술이 명확하다. 예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더라도 다 헛일임을 이 말씀은 비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로 나누인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두 부류 중 비슷한 점들과 차이점들은 무엇인지를 적으라(마 7:24-27).

2. 두 부류를 비교 대조한 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치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라.

3.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을 전부 그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마음에 안 맞는 말씀은 무시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들의 눈에 별로 중요치 않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가르침 몇을 적어 보라.

4. 비, 홍수, 폭풍이 인생에 닥쳐올 때 각 사람의 행한 바가 어떠한지 그대로 드러난다.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폭풍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 오늘 본문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도가 인생의 출발을 견고히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6.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청중들의 반응을 적으라. 그들의 반응은 왜 그러했던가?

7. 지금까지 주님의 산상수훈을 집중적으로 배워 왔다. 당신은 듣기만 한 자였는가? 듣고 행한 자였는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감동받았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적으라.

## 해 답

1. 둘 다 듣고 집을 지었으며 함께 폭풍우를 당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한 양쪽 다 선악을 떠나 나름대로의 영적 집(인생)을 건축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영적 폭풍우를 당한다.

2.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 후 거울을 떠남으로써 곧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도 같다(약 1:22-25).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면 마음이 강박해지고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된다.

3. 세족레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충만해지는 것 혹은 금식이나 이웃에 긍휼을 베푸는 것 따위 등...

4. 건강, 제정문제의 폭풍, 혹은 결혼의 폭풍, 가정문제 등등. 어떤 폭풍이든 반석 위에 기 기초가 서 있으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5.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배상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없이 인생을 시작하려 함은 어리석다. 거룩함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인생을 시작하면 더욱 지혜롭다. 그 기초가 그만큼 튼튼한 것이다.

6. 그 가르치심에 경악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부패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늘상 들어 왔다. 그러니만큼 진리의 말씀에 놀란 것이다. 그 분은 권세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7. 각자 하도록.